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본격 활동

도의회, 활동계획안 채택... 추가 유치·전북도와 기존 혁신도시 이전 기관 상생협력 지원에 중점 이명연 특위위원장 “농수산대 타시도 분교 설치·경기도 승진후보자 교육과정 자체 추진 등 대응”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22일 제2차 회의에서 특위의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 및 전라북도와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활동할 계획이다.

이명연 특위위원장(민주당, 전주

11)은 “전북의 도민들은 과거 LH유치 실패에 대한 아픔을 겪고 있다. 다시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중앙정권과 연대하여 조정 연관성과 지역내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전라북도로의 유치를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치가 유리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한 연금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대형 국책 금융기관 등을 유치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최근 농수산대학교에서 타시도에 분교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현재 행정계획이다. 특히,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기존 공공기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치가 유리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한 연금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대형 국책 금융기관 등을 유치



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일괄로 실시하고 있는 각 시도 사무관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에서 자체교육으로 대체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전라북도의 소속 기관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전라북도의 몫을 뺏거나 전

라북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도와 진지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특위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전라북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필요한 예산지원 등 도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기존 도내 공공기관 이전현황,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정지권 및 부처 동향,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및 분석자료, 전라북도 대응 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4월중에 업무보고 받을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세계 물의 날 기념공연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공연단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메시지 “그 어떤 도발도 용서 불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해수호의 날 4주년을 맞아 “우리는 그 어떤 도발도 용서할 수 없으며 힘에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구로 가는 길,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투어인 대구 방문 일정으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했다.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며 “그 어떤 순간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바다가 용사의 희생, 가슴 깊이 새길 것”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며 “그 어떤 순간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바다가 용사의 희생, 가슴 깊이 새길 것”

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으로 희생된 장

병들을 향해 추모의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다를 지키며 산화했지만 바다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젊은 용사들의 이름을 떠올려본다”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 소령과 다섯 장병들, 천안함 46용사와 연평도 폭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을 깊이 추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웅들”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탁현민 “외교 결례 운운 자체가 상대국에 결례... 얼척없어”

“상대국 불만 없는데 야당이 얼척없는 주장 참 흔치 않아 외교전문가 아닌 사람이 순방 행사 말는다? 잘못된 주장”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대국가가 어떤 말도 없는데 외교 결례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상대국에 대한 결례”라고 지적했다.

탁 자문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 “상대국은 아무 불만이 없는데 자국의 대통령이 실수했다고 야당이 나서서 얼척없는 주장하는 경우는 참 흔치 않은 것 같다”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 논란이 된 외교적 결례에 대한 지적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탁 자문위원은 이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각종 내부 행사 기획을 책임져 왔다.

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중 인사말 실수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우리 측 실무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비외교전문가들이 행사의 의전을 맡으면서 실력이나 경험, 전문성 등이 부족해 이러한 실수를 야기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탁 자문위원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외교부와 청와대에 파견된 외교부 공무원들이 전담한다”며 “국내 행사기획과는 업무적으로 분리돼 있다. 순방 행사의 의전은 외교부의 의전장이 총책임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은 의전

장과 협업하며 대통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외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순방행사를 맡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의 순방 행사에서는, 정상이 앉는 자리에 놓이는 물건의 위치와 컵 받침도 양국의 담당자들이 협의한다”며 “건배는 물론이고 건배사 이후에 음식 순서까지도 당연히 협의한다”고 했다. 음주가 엄격하게 금지된 브루나이 국빈방문 당시 문 대통령이 건배사를 제외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탁 자문위원은 “의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는 척을 하는 건지, 알지만 모르는 척 하며 그러는 건지...라며 “어떤 이유에서이건 근거가 박한 트집은 대통령뿐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큰 결례”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어린이창의체험관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국주영은 의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지난 22일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결정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결정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창의체험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면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운영시스템과 다양한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용객의 만족도나 프로그램의 수준, 시설 및 각종 도구의 배치, 직원의 임금 및 처우, 직원의 서비스 태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



과 이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타 시도 사례를 살펴 각각의 장

단점을 분석, 최상의 운영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이 도내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건전한 놀이 문화형성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지리산 육모정~고기삼거리 도로 열선 설치”

강용구 의원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은 지난 22일 제36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남원시 지리산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국지도 60호선에 도로 열선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 구간은 동절기 강설 및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아 해마다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지리산 탐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리산 탐방객들에게 네비게이션이 1차적으로 안내하는 곳이 육모정~고기삼거리 코스인데 겨울철에는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왔다가 육모정 입구에서 차



량 통제에 막혀야에 탐방을 포기하거나 15분이 더 걸리는 운봉이나 구례 화엄사 쪽으로 차를 돌리고 있다.

강 의원은 “국지도 60호선 도로처럼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지리산 산간지역은 아무리 열화갑을 붓고 해빙 등 제설작업을 수시로 벌여도 한계가 있다”며 “이 구간은 제설작업 자체도 어려워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설비나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경제적 논리에 막혀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김진성 기자

I START AT JEONJU UNIVERSITY

꿈꾸던내가 시작되는 곳, 전주대학교

www.ji.ac.kr/iphak

입학지원처: 063-220-2700~6 입학지원팀: 063-220-3234~5
 입학홍보팀: www.ji.ac.kr/iphak ·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입학홍보팀을 참조.

전주대학교